율법 친화와 복음 추진력

(롬7:7~13)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율법 친화와 복음 추진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율법친화, 율법과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야 복음을 향한 우리 마음에서 추진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십자가복음을 향하여 힘차게 다가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도바울이 밝힌 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대로 쓰여 있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행위의 원칙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길도 아니고 행위의 원칙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과 갈등 없는 친화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또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딱히 무엇에 소용이 될지 모르는 율법과 갈등 없이 친하게 지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참 문제에요,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바울이 7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뭐 죄까지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느냐 하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게 되므로 율법에 대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같이 죽은 것으로 고백해버리게 되니까 율법이란 것은 마음의 '몸 쓰기' 법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몸을 쥐고서 어떻게 이 몸을 움직이느냐 하는 법을 가르치는 몸 쓰기 법을 가르치는 게 율법인데, 우리 마음이 몸에 대해서 죽고 몸으로 만나게 되는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율법이 의미가 없어져버렸다는 얘깁니다, 몸을 쥐고 있을 때 율법이죠.
그리고 6절에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 할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칭의를 위함도 아니고 행위의 원칙도 아니라면 어디다 쓰는 것이냐?
한 마디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해주는 데에 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율법 외에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도 없다는 이 말씀은, 율법이 없으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실제 범하는 행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범하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죄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또,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모세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 이전의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었지마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의미를 지금 7절부터 13절까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다시 똑같은 의미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여기에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죄를 짓고 있어도 죄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죄의식을 일깨우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죄책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절대로 절대로 십자가복음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오직 죄의식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로부터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을 우리 마음에 일깨워주는 율법이 우리 가까이에 없고,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복음을 향해 못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율법과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넓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을 향하여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고, 복음의 효과를 내 삶에서 실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즉, 복 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율법과 친하게 지내고, 율법과 친하게 지내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의 죄 됨을 봐야지만 복음의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꼬여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일단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행동의 원칙으로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죄적인 행위가 내게서 죽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적인 행위를 내가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없으면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율법을 얘기하면서 열 가지 계명 중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열 번째 마지막 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했을까요?
여기에 사도바울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 번째에 쓰여 있으니까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바탕이 되는 기본 마음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말 하는 것도, 그 모든 범죄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드는 겁니다.

탐심은 어떨 때 생기느냐 하면,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빗나가서 몸에 가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에 달라붙는 것 자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몫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내 것으로 허락되지 않았는데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내 것으로 허락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마음이 머물러 있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비껴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몸에 가 달라붙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 붙어있는 이 구조 안에서.
이 죄적인 상태의 기본바탕이 되는 마음가짐이 바로 탐심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가 죄인 됨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몸을 통하여 만나는 대상을 향해서 탐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 명품 가방을 갖고 싶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이유가 몸에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몸에 우리 마음이 가서 붙어있기 때문에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람을 갖는 것,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몸에 붙어서 마치 이것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움직여 가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으로 삼는 것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한 이 내용을 사도바울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즉, 몸을 갖고 살면서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는 모든 순간에 죄

인인줄 알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걸 갖고 싶은가 하면, 마음이 몸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이 세상 것 중에서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갔을 때,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은총과 사랑이 내 마음으로 다 전달되고 채워집니다.
이때 이 몸을 통해서 만나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갖게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마음과 몸이 붙어있는 구조가 깨어지고 우리 마음은 몸과 몸으로 통해 만나는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은총을 받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모드로 우리 마음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 입, 촉감이 있습니다, 이 5감관이 문이에요, 문.
5감관의 문을 통하여 이 세상이 홍수가 범람하듯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과 만나 이 세상의 삶으로 출발했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 5감관의 문을 통해 이 세상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는 마음과 몸이 붙어있는 그 죄적인 존재의 구조로 복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천국에서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부족함이 없어야 될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싶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저것을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소원들이 생기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깜짝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의 오늘 말씀은.
그래서 탐심이 일어나는 걸 알고 '아, 내가 지금 죄적인 구조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얘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갖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의 원칙도 아니지만 율법이 이런 기능을 갖는다는 얘깁니다.
행동의 원칙이 아니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배임,

횡령,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하다가 걸리면 인생이 끝장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면 나중에 자식 보기에 부끄러울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뜻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을 내가 전해 듣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순간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행위의 원칙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5감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느덧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비껴나가서 그렇게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세상의 대상들을 향해 가게 되고 우리 몸에 붙어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다시 작용을 해서 '아차, 내가 또 세상을 향하여 무언가를 탐하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된 존재의 구조로 다시 복귀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복음을 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세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의 두 가지 요소인 죽고 부활하는 일이 평생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적인 구조로 복귀될 테니까.'
그래서 말한 게 Daily Baptism 이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상번제요, 오늘의 번제라는 이야깁니다.
'오늘의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탐심을 갖게 되고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차! 내가 탐하고 있구나, 이것은 마음이 몸에 붙었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고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얘깁니다.

이러한 취지를 통해서 사도바울이 계속 말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8절 같은 경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꼭

계명 때문에 탐심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같은 의미에요.
죄적인 존재의 구조 안에서 생겨난 내 마음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도 그 얘기에요.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모른다는 얘기이고,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들이 다 무슨 암호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얘기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었을 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인줄 알고 내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중의 많은 계명들을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로는 범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내게서 무슨 대단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은 계명이 내게 이른 거나 계명에 도착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과 계명이 갖고 있는 참 뜻을 내가 깨닫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괜찮은 줄로 알고 살았던 나 전체가 아예 존재자체가 죄악 된 구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내가 팍 죽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겁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의 참 뜻을 알고 나니 오히려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11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속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죄악 된 구조 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몸에 붙은 상태가 내게 말을 한 겁니다, '네가 계명을 문자적으로 따라서 행동할 수 있으면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진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주시려고 했던 것은 행동 이전의 죄적 구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 된 상태가 죄적 구조를 못 보게 하고, '행동해! 행동해!' 그랬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다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 하지 못했나를 보니까 내 속에 죄적인 구조가 있었다 이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주님의 십자가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고, 행동의 원칙도 아닌 게 돼버렸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죄적 존재의 구조로 복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탐심의 기본바탕이 생길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죄적인 구조로 복귀되었구나!' 하고 깨달음으로써 날마다 세례를 받으라는 루터의 말처럼,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추진력을 얻게 됨으로 십자가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왕성하게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율법이 주효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율법과 친화적인 삶을 살므로 복음을 향한 추진력을 얻게 되어 복음의 효과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왕성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